



명성황후의 국장 모습을 그린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

되었다.¹⁴ 장례 시기의 연기에 대해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황제가 된 후에 황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 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명성황후의 능제를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 청나라 남경(南京)으로 사람을 보내 명나라 고황후(高皇后)의 효릉(孝陵)을 그려 오게 하는 등 국조의 산릉 중에서 가장 성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⁵ 《독립신문》 1897년 11월 20일 논설에는 명성황후 장례식이 처음으로 황후의 존호로 의식을 치른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장의궤에 기록된 명성황후 국장의 행렬 동선은 경운궁에서 인사(새벽 4시경)에 출발하여 돈례문(敦禮門)→금천교(禁川橋)→인화문(仁化門)→신교(新橋)→혜정교(惠政橋)→이석교(二石橋)→초석교(初石橋)→흥인문(興仁門)→동관왕묘(東關王廟)→보제원(普濟院) 앞→한천교(寒川橋)→천장산 청량리를 경유하여 홍릉에 12시경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가는 도중 종묘 앞과 동대문 밖, 노제소, 능소 홍살문 밖에서 노제(路祭)를 지냈다. 여기에 동원된 수행원은 발인반 차도에 4,800여 명으로 대규모의 행렬이었고, 역사상 최초의 황후 장례식 이기에 그 행렬에 있어서도 가장 화려하고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다.¹⁶